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1호 【루계 제2509호】

주체107(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음력 8월 20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5천년을 함께 살던 민족에게 희망이 생겼다.》, 《평화의 첫 출발은 백두산》

남조선 각계층이 터친 격정의 목소리

뜨거운 민족애와 포옹력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대범한 결단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회담은 온 남녘땅을 충격과 환희, 경탄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평양수뇌상봉과 회담과정을 목격한 남조선언론들과 정계, 사회계 인사들, 전문가들, 각계층 인민들은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련합뉴스》, 《뉴스1》, 《이데일리》를 비롯한 언론들은 이번 북남수뇌상봉의 전과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시민들, 생중계 보며 동시 환호》,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 등의 표제밑에 남북수뇌분들께서 상봉하시고 뜨겁게 포옹하시는 영상을 대형화면으로 뵈옵고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였다, 동시에 웃음소리,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낯선 사이인데도 서로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었다고 전하였다.

북남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발표 등의 사변을 격정속에 지켜본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수뇌분들의 상봉이 감동적이다, 하나가 된다는것이 정말 좋고 감격적이다, 통일이 어서 되였으면 좋겠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북남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격동적인 소식은 남조선언론들과 겨레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련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울경제》를 비롯한 언론들은 일제히 《남북정상 백두산에서 한반도 평화의지 피력》, 《천지에 새 력사의 모습 담아》, 《천지내준 백두산기운, 평화의 한반도 서광될것이다》, 《백두산방문 축하》 등의 제목으로 북남수뇌분들께서 백두산을 탐승하신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서울신문》은 《남북의 정상이 민족의 성산에 오른것은 정말 대단한, 통일의 징조를 보이는 의미있는 일이다. 백두산에서 남북정상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것은 8천만 민족과 전세계에 〈우리가 이젠 평화로 간다.〉, 〈평화의 첫 출발은 백두산〉이라고 전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대서특필하였다.

《백두산천지를 배경으로 선 남북정상의 모습은 누구도 상상할수 없었을것이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두 정상에게 천지를 내준 백두산의 기운은 민족의 하나됨과 평화의 한반도 서광이 될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두 정상내외가 백두산에 섰다는것만으로도 감동이 있었을것이다. 백두산은 국제사회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는 그 상징이 워낙 크고 한 민족의 진원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여서 그 정서는 훨씬 크다.》 등으로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탐승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정계인사들도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탐승을 축하하는 론평들을 통해 남북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에 오르신것은 참으로 뜻깊다, 백두산은 민족의 혼이 어려있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곳이다, 국제적으로도 남북이 한뿌리라는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였다고 하면서 백두산방문은 조선반도에서 랭전이 종식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남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시민들속에서는 《백두산에로의 그 걸음이 통일로 가는 길 되길 바란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60대의 한 남성은 북남수뇌분들께서 백두산에 오르시는 소식을 대형화면을 통해 크나큰 흥분속에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자기는 기자가 아니지만 오늘같이 력사적인 순간과 사회계의 반응을 기록하고싶어 나왔다, 이번 회담으로 평화에 한걸음 더 다가간것 같다고 격동된 심정을 터쳤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 《5천년을 함께 살던 민족에게 희망이 생겼다.》, 《평양에 갈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진것 같다.》…

서울과 광주 등 남조선각지의 주민들속에서 울려나오는 이 목소리들에는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탐승이 우리 겨레모두에게로 이어질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이 그대로 어리여있다.

력사적인 평양북남수뇌상봉의 나날들에 새겨진 감동적인 화폭들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의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할수 있게 하였다.

하기에 남녘겨레들속에서는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로 이어가겠다는 실천적의지가 담긴 이번 수뇌상봉과 선언은 8천만 겨레에게 잊지 못할 화폭이며 선물이다.》, 《평화의 새로운 력사를 열어가는 일은 더는 멈춤도 뒤걸음도 없어야 하고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 《그 길에 남녘민중을 비롯한 온 겨레가 함께 할것이다.》는 격정의 토로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있다.

본사기자

이루 말할수 없는 감격스러운 상봉, 가슴벅차오르는 력사적인 날

남조선 각계의 반향

남조선 각계층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다.

거리들의 곳곳과 역대합실들에 설치된 대형화면앞에 모여있던 서울, 대구시민들은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오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는 순간 일제히 박수를 치며 서로 붙안고 기쁨을 나누었다.

《이루 말할수 없는 감격스러운 상봉이다.》, 《가슴벅차오르는 력사적인 날이다.》, 《하나가 된다는것이 정말 감격적이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였다.

《국회》회의실에 모여있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부의장 등은 북남수뇌분들께서 뜨겁게 포옹하시자 참으로 감격적이라고 하면서 얼싸안기도 하였다.

야당들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의원들도 《력사적인 날이다.》, 《감회가 새롭다.》, 《훌륭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박수를 힘껏 치며 환호를 터쳤다.

서울의 《정부》청사 회의장에서는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5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세번째로 남북수뇌분들이 상봉하는것만으로도 놀라운것이라는 경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 중구의 한 기자쎈터에 모인 기자들도 력사적화면이 펼쳐지는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탄성을 올렸다.

이에 대해 《련합뉴스》는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자 취재진은 력사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일제히 고개를 들어 화면을 지켜보았다, 요란했던 휴대용콤퓨터 타자소리는 일시 정지되였고 바삐 오가던 기자들도 발걸음을 멈췄다고 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북남수뇌상봉을 위해 취하신 조치들에 대해 모두 경탄을 표시하며 이것만 보아도 구체적성과가 주목된다고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하여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과 단체들은 물론 보수계의 개별적인물들과 단체들까지도 적극 지지한다는 립장을 내놓았다.

울산시장은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을 만들었으며 이번 남북수뇌상봉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할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광주시장은 이번 북남수뇌상봉기간 마련된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과 실천에 광주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으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조선반도력사를 열어가는 일은 더는 멈춤도 뒤걸음질도 없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며 그 길에 광주시민을 비롯한 온 겨레가 함께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김책공업종합대학창립 70돐 전국대학생프로그람경연 진행

김책공업종합대학창립 70돐 전국대학생프로그람경연이 21일부터 25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을 비롯한 60개 대학에서 선발된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68개조로 나뉘여 경연하였다.

참가자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마음껏 배우며 나라의 정보과학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자기들의 높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경연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희천공업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등이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25일에 진행된 페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생산성과 확대

국토환경보호성,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들에서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생산을 다그치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근에만도 잣나무, 아카시아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50여종에 2 6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키워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도시미화에 이바지하고 관상적가치가 큰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고있다.

이들은 나무모들의 생태학적특성에 맞게 덧거름주기, 김매기, 물주기 등 비배관리사업을 짜고들고 방울식관수체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평양단풍나무, 스트로브스소나무, 황목련 등을 튼튼히 자래우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나무모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 준공식 진행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굴지의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화의 장쾌한 동음이 울려퍼졌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념화한 공화국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은 열렬한 애국충정과 비상한 창조기풍으로 산소열법용광로를 비롯한 방대한 주체화대상공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훌륭히 완공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 준공식이 25일에 진행되였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주체화대상공사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로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을 오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달하였다.

김덕훈 내각부총리의 준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준공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주체화대상들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추동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후 북남당국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인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마련되였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평양에서 제5차 북남수뇌회담이 열리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에 평화번영과 통일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북돋아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북남관계에서 일어나고있는 커다란 사변들은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것이였다.

새해 첫 아침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되게 하자는 친출위인의 호소가 천하를 진감하였다. 절세위인의 뜻을 받들어 남조선에서 진행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이 참가하여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공동의 대사로 성대히 치르었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남조선을 찾은 공화국의 삼지연관현악단은 가는 곳마다에서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공연으로 겨레의 통일열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러한 속에 지난 4월 27일 오랜 세월 민족분렬과 대결의 상징으로 되여왔던 판문점에서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관계발전을 적극 추동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귀중한 초석이 마련되게 되였다.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과 남사이에는 정치, 군사,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거기에서 마련된 합의에 따라 장령급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철도협력분과회담, 도로협력분과회담, 산림협력분과회담 등 부문별회담들이 진행되고 일련의 합의들을 이룩하였다.

이번에 또다시 진행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해 북과 남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를 두고 《이루 말할수 없는 감격스러운 상봉이다.》, 《가슴벅차오르는 력사적인 날이다.》, 《하나가 된다는것이 정말 감격적이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다.

이번에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올해안에 동, 서해선철도 및 도로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 또한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들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래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북남삼천리에 용용히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현 조선반도정세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을 위한 북과 남의 조치들을 적극 평가하고 환영해나서고있다.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4.27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남조선 로동단체들, 경제계,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9월평양공동선언》 적극 지지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가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는 경이적인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데 대해 언급하고 남과 북은 조선반도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통일의 주체라고 강조하였다.

통일을 가로막던 장막을 걷어내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된 긍지에 가슴이 설레인다고 하면서 단체는 전쟁을 끝장내고 평화를 실현하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평화의 봄으로 이끌어낸 4.27판문점선언이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로 통일의 가을을 맞이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반드시 리행하며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통일을 실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회견문은 주장하였다.

회견문은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떠한 난관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나가려는 자신감을 내외에 천명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열렬히 환영한다!》, 《한반도전쟁을 끝내고 가자 평화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리행으로 가자 통일로!》 등의 구호를 웨치며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에 나설 의지를 피력하였다.

남조선《련합뉴스》에 의하면 20일 로동계가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민주로총은 판문점선언리행과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키는 길에 성큼 한발을 내디딘 《9월평양공동선언》을 조건없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라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한국로총》도 어려운 정세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남북수뇌분들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남조선《련합뉴스》에 의하면 19일 경제계가 일제히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론평들을 발표하였다.

《전국경제인련합회》는 조선반도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평양공동선언이 남북사이 호혜 및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나가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월평양공동선언》발표가 조선반도의 평화시대를 여는 분수령이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앞으로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추진에서 실질적인 전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경영자총협회도 조선반도평화와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시대의 도약을 알리는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경제교류발전과 공동번영에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무역협회는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합의되였다고 하면서 아울러 남북사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류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양공동선언이 성공적으로 리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남북경제교류와 발전에 앞장설것이라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온 겨레를 품어안은 백두산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력사적 사변을 맞이하였다.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에로 향한 힘찬 발걸음이 가속화되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북남수뇌분들께서 백두산에 오르시여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은 하나임을 온 겨레와 세계앞에 보여주시였다.

평양수뇌상봉을 성과적으로 마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여 웅건장중한 산악미를 부감하시고 천지를 돌아보시였다. 백두산정과 천지호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 내외분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백두산에 오르신 북남수뇌분들께서 굳게 잡은 손을 높이 드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감격적인 순간은 북과 남 온 겨레가 손을 잡고 새로운 평화번영의 려정을 따라 큰 걸음을 내디디는 뜻깊은 화폭이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린 성산에 오른 감격을 피력하며 오늘의 첫걸음이 온 겨레가 모두 찾는 시대로 이어질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남북정상이 민족의 령산 백두산을 산책한것은 력사의 명장면》이라고 전하였다.

백두산은 민족의 조종의 산이다.

유구한 우리 민족사의 발상지이고 민족의 슬기와 넋, 기개가 어리여있다.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슬기롭고 용감하고 순결무구한 민족의 넋이 백두산에서 태여났다고, 여기에 뿌리를 두고 이 나라 강토에 줄기가 뻗어내렸다고 하며 백두산을 민족의 존엄으로, 기상으로 여기였다. 옛 시구에도 《백두산이 남으로 바다를 밀고 나와 뿌리를 박고 그 뿌리를 타고 뭇산들이 늘어서서 삼천리강산을 이룩하였으니 이것이 곧 우리 조선의 땅이다.》라고 표현하였다.

백두산에서 한지맥으로 뻗어내린 강토에 삶의 뿌리를 둔 조선민족은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타고나 백두산악처럼 강인용감한 기상과 백두의 흰눈과 천지의 맑은물처럼 아름답고 순결무구한 넋을 체현한 민족이다.

겨레의 백두산에 대한 숭상은 조선에 대한 숭상이였고 대대로 조국에 대한 사랑이였다. 백두산줄기줄기에 대대로 이 강토를 지키고 겨레의 운명을 위하여 바친 애국충신들의 넋이 스며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망국의 세월 조선민족은 백두산을 주름잡으며 항일대전을 벌리였다.

민족이 정신적기둥으로 여기는 백두산을 타고앉으면 겨레의 반일애국력량을 항쟁의 마당으로 불러낼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솔하에 조선의 열혈투사들이 백두밀림에서 하늘을 지붕삼아 풍찬로숙하며 일제와 결사항전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국내로 진출한 항일빨찌산이 백두산기슭에서 보천보의 밤하늘에 일제격멸의 불길을 지펴올리였을 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성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보천보전투소식을 대서특필하였고 너무도 감격한 몽양 려운형은 황황히 보천보로 달려갔었다. 보천보의 홰불은 암흑에 시달리는 온 민족에게 민족재생의 서광을 비쳐준 희망의 등불로 되였다.

백두산시절을 회고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필승의 신념,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헌신성과 희생성을 백두의 혁명정신이라고 하시였다.

백두산은 령봉을 둘러보아도 강용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천지호반을 걸어도 심신을 정결하게 정화시켜주는 성스러운 산이다.

장쾌한 해돋이, 기세찬 눈보라, 희디흰 서리꽃이며 천지호반, 천리수해, 만병초, 폭포, 온천을 비롯한 아름답고 신기한 자연경개에는 성산의 모습이 그대로 비끼여있다. 백두산의 웅건한 자태와 천변만화하는 눈부신 기상은 민족의 슬기로운 모습이고 상징이다.

북남수뇌분들께서 백두산에 오르신 그날 남측의 한 인사는 백두산은 두팔벌려 온 강토를 안아주는 어머니모습이였다고 하였다. 또 다른 인사는 천지의 맑은물을 떠마시며 백두산의 정기를 온몸으로 느끼였다.

백두산을 알면 나라를 알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하여진다.

어제도 오늘도 삼천리강토를 거느리고 하늘높이 솟아있는 백두산은 북과 남이 하나가 될 광명한 미래에로 온 겨레를 부른다.

본사기자 리 설

절세의 위인상이 빛발친 평양상봉

온 민족의 기대와 관심,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 평양에서 있은 제5차 북남수뇌상봉을 통하여 겨레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뜨거운 민족애를 지니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모로 열광하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이 이번 평양수뇌상봉을 계기로 선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또다시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 《**김정은**위원장은 민족의 미래가 기대되는 위인이다.》, 《민족의 자랑으로 떠받들 지도자이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북남수뇌상봉의 나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배려, 뜨거운 동포애와 포용력은 만사람의 격찬을 자아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의 첫 시작부터 울려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여 남측대통령내외분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21발의 례포가 오를 때 남녘의 동포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 《파격적인 례우》라며 격찬하였다.

남측대통령과 그 일행이 숙소로 향하는 연도에서는 10만여명의 평양시민들이 《조국통일》, 《평화》, 《번영》이라고 웨치며 열렬히 환영하였다.

룡흥네거리와 려명거리, 4.25문화회관광장을 비롯한 거리의 곳곳에 꽉 들어찬 군중들, 살림집창가들에서 손을 흔들며 반기는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남측대통령과 일행은 무한대한 도량으로 자신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에 감복을 금치 못했다.

남측일행을 위해 베푸시는 그이의 다심한 사랑과 배려를 남측수행원들은 행사과정에 더욱 느낄수 있었다.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위하여 마련한 환영공연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함께 관람하시고 오찬과 만찬도 함께 하시며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나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겸허하고 소탈하신 풍모는 또 우리 겨레를 얼마나 경탄케 하였는가.

남측인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환영연회에 오를 음식에 이르기까지 관심해주신데 대하여 외교사에 없는 배려라며 진실로 감격해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특별장을 펼치도록 하시여 장내를 민족화합의 후더운 열기로 달아오르게 하시였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면서 이번에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하시였다.

탁월한 지략과 통이 큰 결단, 뜨거운 민족애, 고매한 풍모로 불신과 대결로 빗장이 질러졌던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 래왕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를 락관하게 하는 소중한 성과들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남조선인민들도 《통이 크신 **김정은**위원장님 참 멋지다!》, 《**김정은**위원장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김정은**위원장님 정말 훌륭합니다. 평화통일을 이루자!》등으로 그이의 위인상을 높이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를 끝없이 격동케 하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김정은**위원장은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천지에 새 력사의 모습을 담아 북남사이에 새로운 력사를 써나가자는 발언을 하심으로써 민족이 힘을 합쳐 통일조국을 안아와야 한다는 의지를 남쪽사회에 심어주었다.》고 하였다.

시간이 감에 따라 절세의 위인에 대한 흠모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은 로련한 외교술로 평양남북수뇌회담을 또다시 마련하여 전세계에 〈전략적지도자의 위상과 능력〉을 확고히 과시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문재인을 맞이한 때로부터 백두산에서 배웅하기까지의 2박 3일동안 담대한 지략과 파격적이고 통큰 결단, 솔직하고 소탈하며 겸손한 화법, 세심한 배려로 평양수뇌회담을 〈파격〉,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로 장식된 〈세기적인 정상회담〉을 만들었다.》, 《**김정은**위원장은 뜨거운 동포애로 3일동안 남측대통령을 무려 14차례, 17시간동안 만남으로써 〈신뢰와 우정이 낳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가장 두터운 친교외교〉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김정은**위원장은 서방지도자들도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더 열려있고 소탈하며 자신감있는 모습이였다. **김정은**위원장은 솔직하고 겸손한 발언과 주변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면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재치, 거침없이 결단하는 대범한 지도자의 위상으로 평양수뇌회담을 〈세기적회담〉으로 장식하였다.》…

정녕 평양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온 겨레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분이 과연 어느분이신가를 페부로 절감하였다. 또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참다운 지도자를 알게 되였다.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시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열화같은 민족애와 의지가 안아온 특대사변

9월의 열풍에 온 강토와 세계가 끓고있다. 평양수뇌상봉이 세계에 준 충격은 거대하였으며 삼천리강토는 그야말로 격정과 환희의 도가니로 화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 인사들,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는 평양수뇌상봉은 조선반도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대사변》, 북남력사와 세계외교사상 류례없는 《최고의 사변》, 《전설같은 회담》이였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남조선인터네트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조국통일 만세!》, 《반갑게 껴안는 북남. 눈물이 핑 돈다.》, 《감격스럽다. 조선반도미래가 더욱 밝아보인다.》, 《우리는 하나이다.》 등 평양상봉을 지지환영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랐다.

반세기이상의 대결력사로 하여 얼어붙었던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고귀한 결실들이 맺어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겨레의 마음속에 통일의 밝은 미래를 비쳐주고있다.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 이것은 우리 겨레에게 하루빨리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철석의 의지와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다.

내외의 커다란 충격과 열광, 격정의 환호와 경탄속에 진행된 평양수뇌상봉 전과정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확고한 통일의지의 집중적인 발현과정이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가시여 문재인대통령을 마중하시고 예술공연도 함께 보시며 뜨거운 민족애와 동포애의 정을 나누시였으며 크나큰 도량과 포용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범하게 풀어나가시며 북남관계발전의 중요한 리정표인 《9월평양공동선언》을 마련하시였다.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민족의 꿈이 담겨져있는 《9월평양공동선언》은 그이의 확고부동한 통일의지의 산물, 그이께서 우리 겨레에게 안겨주신 또 하나의 고귀한 선물이다.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제5차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신것은 백두에서 뻗어나간 민족의 혈맥을 잇고 백두산이 뿌려주는 민족의 정기와 기상으로 기어이 이 땅우에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실 드팀없는 의지의 분출이라 할수 있다.

돌이켜보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길우에는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와 난관이 적지 않게 놓여있었다. 그러나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신념이였고 의지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한피줄을 잇고 살아온 우리 민족이 분렬의 비극과 고통을 겪고있는것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분렬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언제나 모든 사색과 활동을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로 지향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 통일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오시기 위하여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뚫고 평화와 통일번영을 위한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민족의 앞길에 몰아치는 광풍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겨레에게 더 빨리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통일의 백두산

우리 민족은 대대로 백두산을 숭상해왔다.

민족의 뿌리가 있고 자랑찬 문화의 증견자인 해솟는 아침의 나라 조선의 백두산처럼 그렇듯 숭엄하고 신성한 곳은 세계에 찾아보기 쉽지 않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이고 조선의 상징이며 반만년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다.

민족의 시조인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성립과 그 뒤를 이은 천년강국 고구려 그리고 해동성국 발해와 첫 통일국가인 고려도 그 시원과 터전을 모두 백두산기슭에 두고 굳게 다졌으며 그 위용과 찬란한 문화전통을 빛내였다.

그래서 백두산을 우리 겨레의 혈맥의 근본이요, 인맥의 본향이라 하는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백두산으로부터 소백산과 태백산, 제주도의 한나산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하나의 백두대산줄기로 연연히 맺어졌으니 백두산은 삼천리지맥의 근원인것이다.

이렇듯 민족력사의 시원, 민족혈맥의 근본, 삼천리지맥의 근원으로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이 오늘은 력사적인 9월평양수뇌상봉과 더불어 또 다른 의미로 가슴에 와닿는다.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에로의 탐승길.

이 땅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하늘높이 솟아오른 뫼부리마다 령묘한 정기를 한껏 내뿜으며 절세의 위인앞에 자기의 웅자를 한껏 드러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의 손을 잡으시고 백두산천지를 배경으로 높이 추켜드시였을 때 북남 온 겨레의 우렁찬 환호는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돌이켜보면 삼천리강토를 한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한적이 있었던가.

단군의 피를 받은 하나의 민족임이 분명한데 남이 아닌 남이 되여 수십년세월 분렬의 고통과 아픔속에서 시달려온 우리 민족이다.

그러한 비극의 력사, 치욕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을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굳게 확약하며 북남수뇌분들이 백두산에 오르신 모습은 그야말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였다.

북남수뇌분들이 백두련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시여 웅건장중한 령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거울처럼 맑고 푸른 천지호반의 장쾌한 전경, 민족의 혈맥인양 련련히 뻗어간 천리수해를 오래도록 부감하시고 담소도 나누시는 격동적인 화폭은 그대로 민족의 단일혈통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고 백두령봉과 백두산의 천지호반을 배경으로 손을 굳게 잡고 찍으신 뜻깊은 기념사진은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굳센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이렇듯 백두산은 북남수뇌분들의 백두산탐승길과 더불어 온 겨레가 모두 찾아야 할 통일의 산악으로 떠올랐다.

생각할수록 가슴벅차오른다.

항일전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백두광야의 사령부귀틀집에서 우리 수령님 그려보신것은 하나의 조국강토였다.

2000년 3월 백두산에 오르시여 통일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구상하신것도 민족이 얼싸안고 통일의 노래를 부를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훈, 민족의 숙원을 안으시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으니 정녕 백두산은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성지로서만이 아닌 통일의 백두산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민족을 알고 애국을 품은 8천만의 우리 겨레는 백두의 기상과 넋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번영의 새아침을 받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김영범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

판문점에서의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4.27선언의 발표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협력의 분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는 속에서 얼마전 평양에서는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다.

꽃피는 봄계절에 이어 풍요한 가을에 또다시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정확히 리행해나가려는 쌍방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를 실행해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과 구체적인 대책안들을 정립하였으며 북과 남이 당면하게 취할 몇가지 실천적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서로 마음과 뜻을 합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적대와 대결이 극화되던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놀라운 변화와 결실들을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고 오늘의 관계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진지하게 의논하시였다.

이번에 채택된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4.27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하였다. 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모두의 꿈이 담겨져있다.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9월평양상봉과 회담은 북과 남이 손잡고 마련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북남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서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점으로 되였다.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는것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고 의지이다.

남조선에서 진행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의 대사로 여기고 잘 도와주기 위해 공화국은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 대규모사절단을 파견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열기를 드높였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채택이후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있다.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북남철도협력분과회담, 북남도로협력분과회담, 북남산림협력분과회담 등 부문별회담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여러 갈래의 접촉과 교류들이 진행되고있다.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과 서울에서는 북남통일롱구경기와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남조선에서 진행된 2018년 국제탁구련맹 세계순회경기대회 코레아공개탁구경기대회 혼성복식에 참가한 북남단일팀이 우승하여 단일민족의 위상을 만방에 떨쳤다. 그런가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북남단일팀도 여러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민족분렬의 오랜 세월 보고싶었던 혈육들을 기쁨과 격정속에 만났고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북남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북남공동련락사무소 개소식이 진행되였다.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의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이번 제5차 북남수뇌상봉은 바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민족애, 드팀없는 자주통일의지의 발현이다.

제5차 북남수뇌상봉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이 아무리 악랄하고 주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길을 힘있게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내외에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제 세계는 오래동안 갈라져 고통과 불행을 겪어온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앞날을 당겨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평양북남수뇌상봉과 회담, 《9월평양공동선언》발표이후 남조선 각계층과 인민들속에서 북남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높아가고있다.

남조선경제계에서는 《평양공동선언은 〈5.24조치〉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철도 및 도로련결사업과 개성공업지구재가동, 금강산관광재개, 서해경제공동특구조성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남경제협력사업에 앞장설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북남교류협력사업을 전문으로 맡아할 특별기구들을 새로 조직하면서 북남교류협력을 위한 준비사업에 적극 나서고있다.

서울시는 서울—평양교류협력사업을 총체적으로 맡아 수행할 전문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을 새로 내왔으며 대전시는 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하여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하는 《남북협력태스크포스》를 조직하였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북남교류협력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파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남조선강원도 양구군, 제주도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북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서울시장, 남조선강원도 지사 등은 《경평축구대회》재개, 2032년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와 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의 북남공동주최, 철도 및 도로련결, 금강산관광재개, 동해관광공동특구건설, 《리산가족상설면회소》설치 등을 실현시키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지금 남조선의 인터네트에는 《이번 공동선언은 평화를 위한 한걸음》, 《력사적인 순간! 이대로 평화통일로 쭉 나아가길 바랍니다.》, 《평화는 세계의 념원, 북은 역시 우리의 형제! 정말 기쁘다.》, 《고맙습니다. 이런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할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등의 수많은 글들이 올라 이번 북남수뇌회담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지지열기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과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온 겨레의 꿈이 담겨져있다.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북남수뇌분들께서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북남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각계각층의 래왕과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민족화해와 통일의 대하가 북남삼천리에 더욱 용용히 흐르게 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수뇌분들이 평화와 번영에로 향한 성스러운 려정에서 두손을 굳게 잡고 확약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순영

삼지연못가의 명화폭

9월평양수뇌상봉과 더불어 민족사에 길이 빛날 명화폭들중에는 북남수뇌분들께서 삼지연못가를 산책하시는 장면도 있다.

조종의 산,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삼지연못가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산책하시는 모습은 온 겨레의 가슴을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크나큰 기대와 확신으로 뜨겁게 설레이게 하였다.

평화와 번영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는 북남수뇌분들을 축복하는듯 하늘도 높푸르렀다.

가을의 경치가 완연하게 안겨오고 금구슬, 은구슬을 뿌려놓은듯 반짝이는 삼지연못가의 물결은 자기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드러내고있었다.

북남수뇌분들께서 삼지연못가의 다리를 거니시는 장면에서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상봉의 날 도보다리산책을 그려보았다.

북남이 힘을 합쳐 관계개선과 평화와 번영에로 전진해나갈 북남수뇌분들의 담대한 결단과 의지를 다시금 보여준 삼지연못가의 명화폭,

이 화폭에서 온 겨레는 밝아오는 자주통일의 창창한 래일을 확신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리행으로 되는 9월평양수뇌상봉은 새로운 력사를 펼쳐가는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북남수뇌분들의 열렬한 민족애와 통일의지에 의하여 격동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고있는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체의 힘으로 평화롭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울 의지에 넘쳐있다.

북과 남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에서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번영의 새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리는 미래에로 한걸음, 한걸음 보폭을 맞추며 전진해나가야 한다.

온 겨레는 반통일적인 모든 도전들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길에서 하나가 되려는 민족의 굳센 기상과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재미동포신문

공동선언리행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이 22일 《자유한국당과 극우, 극좌세력을 경계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남조선의 극우, 극좌세력이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거부하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세를 가로막으려고 발버둥치고있어 해내외동포들의 비난을 받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어 남북수뇌분들이 마련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력사적의의를 외면하고있는데 대해 글은 단죄하였다.

글은 남과 북의 수뇌분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온 겨레의 당면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온 겨레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조국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찬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자주,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다.

그러자면 그 어떤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최고수뇌분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리행하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다.

본사기자

민주로총 위원장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적극 나설 의지 피력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민주로총 위원장 김명환이 2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는 량대로총 위원장들이 이번에 북을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력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을 만들어낸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일행에 참가하였던것자체가 영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말하였다.

남북수뇌상봉과 회담으로 분단을 뛰여넘는 동력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로동계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 여당

4.27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와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에 나설것을 호소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4.27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와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에 야당들이 적극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야당들이 랭전시대의 정쟁에서 벗어나 이제 더는 거스를수 없게 된 조선반도 평화의 도도한 력사적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전 보수《정권》들에 의해 조선반도의 평화가 10년동안이나 실현될수 없었고 남북관계는 퇴보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평양수뇌회담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영원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얼마전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제반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이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론의되였으며 그를 구체화한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의 첫조항에서 북과 남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군사분계선일대와 서해열점수역은 세계적으로 그 류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첨예한 군사적긴장이 조성되여있다.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는 총포탄이 오고가는것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치면 터질것만 같은 군사적긴장상태는 더욱 팽팽해지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골도 깊어졌다.

하기에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것을 온 겨레와 세계앞에 확약하였으며 지난 몇달동안 그 리행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삐라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들이 중지되는 등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들이 중지되여 북남사이의 대결과 전쟁위기가 해소되여나가고있다.

그 기간 북남사이에는 장령급군사회담들과 군사실무회담들이 진행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이러한 긍정적흐름이 지속되여 북과 남은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수뇌회담을 계기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체결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은 이번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련계와 협의를 진행할것을 《9월평양공동선언》에 명시하였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을 적극 지지찬동하고있으며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가 철저히 리행되여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정계, 사회계의 각계층 인사들과 단체들, 언론들은 물론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있는 보수단체인 《자유총련맹》도 《한반도를 항구적평화지대로 만들자는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한다.》는 립장을 성명을 통해 발표하는 등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그의 철저한 리행을 요구하고있다.

이처럼 온 겨레와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받고있는 《9월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가 전면적으로 리행된다면 삼천리강토는 영원히 전쟁의 위협을 모르는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전변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겨레의 보금자리, 삶의 터전인 삼천리강토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김장호

판문점선언리행에 평화번영과 통일이 있다

오늘날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긴장완화와 평화,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있다.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 래왕의 문이 열리고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통일롱구경기와 로동자통일축구대회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여러 종목에 출전한 북남단일팀은 좋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겨레를 기쁘게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겨레 누구나 좋게 첫걸음을 뗀 북남화해국면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있다.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흐름을 적극 추동해나가자면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동강난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잇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자주통일대강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통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나라의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겨레가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더욱 심해지고있다. 세계적으로 나라와 민족들이 발전과 번영을 적극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반목하며 대결하는것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스스로 가로막는 행위이다. 공화국은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북남관계의 파국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 애국의 의지밑에 년초부터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왔다. 공화국의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과 그에 따른 련속적인 파격적조치들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극적으로 전환되였다.

지난 4월 27일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 진행된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의 발표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오는 분렬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의지의 뚜렷한 과시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는 북남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며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판문점선언이야말로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판문점선언의 철저하고도 성실한 리행에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이 있다.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는 판문점선언이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서 종전선언의 채택은 미룰수 없는 과제로 나선다. 종전선언의 채택은 조미사이의 신뢰조성과 관계개선은 물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지금 북과 남, 해외에서 판문점선언의 리행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날로 고조되고있다.

판문점선언은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립증된 우리 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 리익과 관련되여있는 판문점선언의 리행문제를 놓고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것이 없다. 판문점선언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의 극우보수패당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의의와 정당성을 헐뜯고 선언리행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최근 남조선《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행태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과 방해책동도 판문점선언의 리행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김철민

평화번영과 통일을 갈망하는 민심

최근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평양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여기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의 앞길을 밝힌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을 두고 찬탄과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남조선의 대표적인 로동단체인 《한국로총》과 민주로총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항구적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두 정상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국제제재철회를 비롯해 북미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구체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판문점선언리행과 현재의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진전시키는 길에 성큼 한발을 내디딘 9월평양공동선언을 조건없이 환영한다. 시급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미간 평화협정체결과 관계정상화로 이어져야 하며 유엔을 앞세운 대북제재조치철회도 동시에 진행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련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남북정상이 군사적긴장완화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를 마련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데 합의한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해제돼 남북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류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립장을 밝히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참여련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남조선에서 진행된 여론조사들에서는 이번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비률이 80%를 넘어서는 결과가 발표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절대다수의 남조선인민들이 이번 북남수뇌상봉이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려는 민족자주의 기상을 온 세상에 과시한 력사적사변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있으며 하나로 굳게 뭉쳐 평화번영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의 힘찬 진군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삼천리강토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이 땅우에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 민족의 강의한 정신과 뛰여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은 반드시 현실로 꽃펴나게 될것이다.

김성국

평화분위기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미국의 군부세력이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으로 마련된 긍정적인 기류에 역행하는 행위를 일삼고있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부가 오는 2021년까지 초소형위성 30여기를 지구궤도에 올려 이른바 《북조선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싸일 등 대량살상무기동향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대북감시에 활용한다는 내용의 《북조선대량살상무기위협감시방안》을 미국방성에 제출한것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현재 미국방부는 한 군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까지 30여기의 초소형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리는 사업을 추진하고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화석처럼 굳어진 랭전의식의 발로가 아닐수 없다.

미군부세력이 그 누구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을 감시하기 위한것으로 묘사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본성을 가리우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정찰활동이 전쟁의 선행공정이라는것은 하나의 군사상식이다. 위성을 통해 24시간 항시적으로 공화국내부를 손금보듯이 하려는 미국의 정찰강화책동은 결국 그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야망을 계속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장장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세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단순히 이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직결되여있는 문제이다.

하기에 국제사회계는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해 미국이 긴장완화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안정한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사코 《선비핵화》를 고집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끝장내려는 정책적결단을 내리지 않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다.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또 하나의 결실이 마련되였다.

하기에 지금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세계는 평양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구를 또다시 흥분과 충격으로 끓어번지게 한 세기적인 회담으로 극찬하면서 앞으로 사변적인 일들이 련이어 펼쳐지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번영흐름이 더욱 빨라질것이라고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다.

이처럼 북과 남이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를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미군부당국은 이와 상반되게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준비완성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현 정세추이와 동떨어진 미군부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높은 각성을 가지고 그에 대하게 하고있다.

미군부당국은 모처럼 마련된 긍정적인 정세흐름과 맞지 않는 처신을 삼가하는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는것을 알아야 하며 현정세국면에 부합되게 진정성과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제 손으로 제 목을 조인다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에로 향한 남조선민심과 사회의 기류는 급변하고있다.

보수진영내에서도 평양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큰 감동》, 《중대한 합의》라는 경탄의 목소리와 함께 야당들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울려나오고있다.

하지만 유독 《자유한국당》의 보수꼴통들만이 시대와 민심의 지향은 아랑곳없이 독설과 독기를 내뿜으며 대하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다.

《자유한국당》것들은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긴급의원총회》, 《원내대책회의》 등을 벌려놓고 《진정이 없는 문구만 들어간 공허한 선언》, 《말장난이자 단어장난》, 《그림의 떡》 등 입에서 뱀이 나오는지 구렝이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침방울을 튕겨댔다고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나 원내대표라는자들이 앞장서서 《북의 립장만 받아들인 합의》, 《북에 속아서는 안된다.》, 《북의 살라미전술에 동조했다.》는 대결악담도 서슴지 않았다는것이다.

참으로 시대와 민심의 대하에 역행만 하여온 반통일역적들, 동족대결광들의 히스테리적인 발작증이 아닐수 없다.

못된 버러지 장판에서 모로 긴다고 평양수뇌상봉이 열리기 전부터 《엄청난 재정부담》, 《국민적합의》 등 속이 뒤틀린 소리만 내뱉은것도 모자라 민족사에 특기할 평양수뇌회담과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이발을 드러내며 피대를 돋구었으니 대결과 분렬에 기생하며 목숨을 유지하던 생존악습이 또 살아난 모양이다.

시대적감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선반도에 태동하고있는 변혁과 전진의 대흐름을 감지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과연 사고와 의식이 한계를 벗어나 정신이상에 걸린 《자유한국당》것들을 조선사람으로는 고사하고 인간으로 봐야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초등학생도 분별하고 판단할수 있는 민족사적경사에 손가락질을 해댔다는자체가 천하의 천치, 바보들의 망동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기때문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의 거센 격류에 떠밀리우고 뒤채이다나니 머리가 잘못되여도 단단히 잘못된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온 겨레가 새로운 희망과 꿈을 보았다고 열광하는 때에 빛이 무서워 음지로 기여드는 바퀴벌레들처럼 구석에 모여들어 망언과 악담을 뱉어내는데만 골몰하며 발광하겠는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열망과 인류의 기대에는 아랑곳없이 적대와 분렬, 긴장과 전쟁에서 살길을 찾는 이런 역적들이 남조선에 뻐젓이 돌아치고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비극이다.

남조선 각계가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의 망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남북평화를 반대하는 적폐세력들을 총살하자.》, 《〈자유한국당〉은 전쟁을 원하지만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 〈자유망국당〉 없애버리자.》고 저주와 규탄을 퍼붓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시대와 민심의 도도한 흐름에 한사코 역행하는것은 달리는 수레를 멈춰세우려는 버마재비보다 더 미욱하고 미련한짓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민족의 분렬사에 어지러운 발자취만을 찍어온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제 목을 조이며 저승길을 재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민족사적흐름

평화는 인류의 념원이다.

장장 70여년간 지속된 불신과 대결의 고통속에서 한차례의 전쟁을 겪었고 또 시시각각 밀려오는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하기에 우리 민족은 이 땅에 평화의 봄을 안아온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발표를 뜨거운 격정과 환희속에 지지찬동하고있다.

이런 속에서 지난 20일 남조선에서 대표적인 보수단체로 알려져있는 《한국자유총련맹》(회원수 350만명)이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이 단체 서울시지부소속회원 50여명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채택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다.

우익보수단체로 알려져있는 《재향군인회》도 《한반도평화를 위한 평양회담을 지지합니다》, 《남북정상의 통 큰 합의를 적극 환영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평양공동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나섰다.

이 두 단체가 지난 4월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을 지지해나선데 이어 이번 북남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는 행사들을 벌린것은 극히 이례적인것이다.

그런가 하면 얼마전 진행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자유한국당》내에서 34%가 이번 북남수뇌회담을 지지하고있으며 전체 보수지지층의 55.5%가 평양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 당대변인을 비롯한 이 당의 많은 인물들도 《큰 감동이였다.》, 《중대합의를 했다.》, 《새로운 시대에로 대전환한다는 상징적인 사건》, 《한반도평화가 더 빨리 올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을 포함해 야당도 지원하자.》고 적극적인 지지립장을 표시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사상과 신앙,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떠나 각계각층이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 전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평화를 원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평화번영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민족사적흐름으로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밥의 도토리신세가 된 《자유한국당》과 같은 꼴통보수세력들은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의 민족사적이며 력사적인 의의를 깎아내리고 평화번영의 분위기를 대결, 전쟁의 분위기로 되돌려세우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김성태를 비롯한 이 당의 패거리들은 《긴급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라는것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구체적인 핵페기약속이 없는 상봉》, 《진정성이 없는 문구만 들어간 공허한 선언》, 《뻔히 보이는 말장난이자 단어장난》, 《속빈 강정같은 선언》, 《북의 리익만 반영된 일방적인 선언》이라고 중상모독하고있다.

한편 이 당의 라경원은 《비핵화속도와 남북교류, 관계 등의 속도가 맞지 않는다.》고 떠들며 《속도조절론》까지 줴쳐대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추태는 그대로 력사의 무덤에 처박히게 된 산송장들의 최후발악으로 이자들이야말로 이 땅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가 아니라 불신과 대결, 전쟁만을 추구하는 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망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매몰해야 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전쟁을 원하지만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 〈자유망국당〉을 없애버리자.》고 저주와 규탄을 퍼부으며 증오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다. 지어 보수세력내부에서까지 《시대가 크게 변하고있는데 이 흐름을 방해하려고 한다면 력사와 대세앞에 도태될수밖에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울려나오고있는판이다.

초불민심이 보여준것처럼 시대와 대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그에 역행해나선다면 차례질것은 박근혜역도와 같은 감옥신세뿐이다.

《자유한국당》이 변화된 정세흐름에 계속 도전해나서면 나설수록 파멸의 시간만 재촉할뿐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파벌란투당》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내에서 12월의 원내대표선거와 다음해 2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장악을 겨냥한 파벌들의 싸움이 표면화되여 주목을 끌고있다.

2020년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내대표와 당대표자리는 각 파벌들이 군침을 흘리는 비계덩어리이다.

그런데 당륜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노란자위에 자기의 측근들을 올려앉힌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전원을 《일괄사퇴》시키고 젊은 층과 녀성들로 교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함으로써 파벌싸움이 마침내 본격화된것이다.

지금 친박계패거리들은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야 할것은 김병준이다.》, 《세계정당사에 없는 무지막지한 폭거이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있으며 당내주류세력을 이루고있는 김무성패들은 《낡은 인적청산은 응당한것》, 《새로운 물갈이로 전면정비》해야 한다며 둘사이의 싸움을 적극 부추기고있다.

권력을 놓고서는 어제날 친구의 멱살도 가차없이 물어뜯는 정치망나니들의 집합체인 《자유한국당》의 진면모를 드러내보이는 해괴망측한 풍경이라 해야 할것이다.

사실 친박파와 비박파, 친리명박계와 김무성계, 홍준표패를 비롯하여 《자유한국당》내의 파벌들은 이미전부터 다른 파를 밀어내고 당권을 쥐기 위한 자파세력의 확장과 지반다지기에 열을 올렸었다.

역도년의 탄핵으로 와해상태에 처한 친박파는 보수세력안에서 인기가 높은 전 《국무총리》 황교안을 끌어당겨 세력재규합을 이루어 21대 《총선》은 물론 다음기 《대통령》감투도 넘겨다보고있다. 황교안이 벌려놓은 도서출판기념회에 친박계의원들이 무리로 몰려가고 유기준, 윤상직, 김진태를 위시한 친박핵심의원 6명이 지난 20일 황교안과 만나 전당대표출마를 강력히 《권고》한것이 그 실례이다.

한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자유한국당》이 위기에 처하자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만들었다가 《보수의 재결속》을 웨치며 다시 들어온 김무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복당파들은 현재 당원내대표, 당사무총장자리를 저들 패거리가 차지한 유리한 기회를 리용하여 어떻게 하나 친박파를 비롯한 다른 계파들을 눌러놓고 저들이 당권력을 쥐여보려고 하고있다.

얼마전에 미국에서 돌아온 전 대표 홍준표도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당권에 도전할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당내 친홍파들과 은밀히 접촉하며 지반구축놀음을 벌리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내에서의 파벌싸움이 어느 파의 승리로 끝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는것이 남조선언론들과 정치전문가들의 일치한 평이다.

그들은 김병준이 벌리는 《인적쇄신》이 김무성, 황교안, 홍준표와 같은 당권도전예상자들의 지지기반을 허물고 당을 자기 수중에 완전히 장악하려는것이라고 하면서 홍준표가 대표시기 임명한 60여명의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들에 대한 척결이 그를 증명한다고 하고있다.

그리고 김무성패들이 벌리는 《범보수통합》은 지난시기 박근혜에 의해 《배신자》로 몰리웠던 김무성, 류승민에 의한 당권장악을 의미하며 이렇게 되는 경우 친박근혜파전면숙청이 벌어질것이며 그에 대한 친박파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틀린 소리가 아니다.

현재 남조선보수세력내의 《대권후보》지지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황교안을 끌어당겨 부활하려는 친박근혜파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이들의 기도가 성공하는 경우 친박파는 강력한 공세로 김무성파를 비롯한 《자유한국당》내의 다른 파들을 밀어낼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전면혁신》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초, 재선의원들은 홍준표, 김무성, 황교안을 비롯한 구태정치인들, 《올드보이》(늙은 소년이라는 뜻으로 낡았다는 표현)들이 당권을 장악하는 경우 당은 그야말로 치유불능의 《구태정당》으로 전락되고 민심의 완전한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내놓고 의견을 부리고있다.

권력감투에만 눈이 벌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파벌싸움에만 미쳐돌아가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권력광신자, 정치시정배들, 구태인간들이 모여든 거대한 쓰레기통이 아닐수 없다.

《민족배반당》, 《반통일반역당》을 비롯해 경멸과 배격의 오명들로 너절한 《자유한국당》을 이제는 《파벌란투당》이라고 불러야 응당하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도일영

평화의 막뒤에서 재침의 칼을 간다

최근 일본은 공화국의 미싸일과 중국군용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확충한다는 구실밑에 31억 3 500만US$를 들여 미국산 조기경보기 《E2D》 9대를 긴급구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가 하면 핵무기를 대체할 다음세대무기로 알려진 극초음속 순항미싸일에 대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러한 책동들이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목적으로 감행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국가안전보장회의 특별보좌관이라는자가 얼마전 미국의 워싱톤에서 열린 그 무슨 토론회라는데서 핵무기가 없고 선제타격능력도 없는 일본은 현존하는 《북조선의 위협》에 취약하다, 미일동맹의 방어력에 책임있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피대를 돋구면서 독자적인 《대조선선제타격능력》 보유를 주장한것은 이를 그대로 실증해준다.

무기구입과 함께 일본은 해외침략을 노린 군사훈련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

지난 11일 일본은 태평양상에서 미국과 함께 해상 《자위대》의 최신예구축함에 새롭게 장착한 이지스탄도미싸일요격체계를 검증한다고 하면서 탄도미싸일요격시험놀음을 벌리고는 공화국의 《점증하는 역내위협》을 격퇴하는 방어능력에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고 떠들어댔다. 뒤이어 지난 13일 해상자위대 잠수함 《구로시오》호와 동남아시아주변해역을 장기항해하는 호위함 3척 등 모두 4척을 동원해 극비밀리에 남중국해 필리핀부근 공해상에서 처음으로 미국항공모함과 함께 대잠수함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속에 일본수상 아베는 련일 조일수뇌상봉을 운운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평화와 번영의 주추돌을 쌓을것》이라고 하면서 철면피하게 놀아대고있다.

심술이 바르지 못한 섬나라족속들만이 할수 있는 2중적행태가 아닐수 없다.

일본이 앞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떠들고 뒤에서는 그 무슨 《북조선위협》을 떠들며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것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마련되고있는 평화흐름에 역행하여 정세를 지난 시기와 같이 악화시키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노릇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와 노력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완화와 평화의 흐름이 대세로 되고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태발전은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계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으며 인류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있다.

시대는 변하고 환경도 바뀌였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정치난쟁이 일본은 《미싸일위협》이라는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독자적인 《대조선선제타격능력》까지 갖추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사리와 분별을 잃고 날뛰는 왜나라족속들의 재침야망이 이제는 도수를 넘어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펄럭거리며 버젓이 남조선에 기여들겠다고 호통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류의 평화념원에 역행하는 사무라이후손들의 광기로 하여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지역에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 몰려오고있다.

문제는 미국이 평화애호국가인 공화국에 대해서는 《압박》과 《비핵화》를 떠들며 제재압박소동에 혈안이 되여있는 반면 전범국인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대국화책동에 대해서는 비호두둔하며 재무장에로 적극 부추기고있는것이다.

세계가 똑바로 눈을 뜨고 경계해야 할것은 그 무슨 《북조선위협》이 아니라 인류에게 또다시 참화와 재앙을 들씌우기 위해 전쟁국가에로 질주하는 일본의 발광적인 준동이다.

평화의 막뒤에서 침략의 칼을 벼리면서도 앞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평화와 번영의 주추돌을 쌓을것이다.》, 《랍치문제와 핵, 미싸일문제의 포괄적해결과 과거청산이후 관계정상화》와 같은 요설을 늘어놓는 일본이야말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족속들이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구 내달리는 군국주의마차에 채찍질을 해대는 일본당국의 무모한 망동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자멸행위이다.

일본은 우리 겨레의 천년숙적에 대한 사무친 증오와 보복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응철

인민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

*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들으며 *

뜻깊은 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공화국의 하늘가에 행복의 노래가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도 그중의 하나이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한없이 고마운 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충만되게 하는 이 노래가 방방곡곡에 울려퍼지게 된것은 과연 무엇때문이였던가. 언제부터 이 나라 인민들은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는 인민이 되였던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우리 겨레가 오랜 세월 바라고 바라던 소원이였다.

민족의 이 숙원을 헤아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시였고 억압받던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사랑의 해빛이 강산에 넘치고 거리와 집집마다에서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처음으로 울려퍼지던 그 세월을 이 땅의 천만군민은 잊지 못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나라의 새벽문을 제일먼저 여시고 인민을 찾아 걷고걸으시며 베푸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 땅에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조국찬가가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는가를 가슴깊이 절감할수 있다.

오늘도 어려온다. 완공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였던 그날 만시름을 잊으신듯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가사를 구절구절 외워보시며 정말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고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수령님의 태양의 그 미소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인민들의 생활은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그대로 즐겁고 행복하였다. 사람들 누구나 집걱정, 입을 걱정, 먹을 걱정, 공부할 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 등을 모르고 살아왔다.

하기에 오래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조국에 와서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처음 들은 한 동포는 이렇게 썼다.

《이 사람은 동서양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해오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나라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든가 자기들의 생활에서 부러운것이 없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만은 남녀로소를 가림없이 모두가 〈우리 나라가 제일 살기 좋다.〉, 〈우리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산다.〉는 말을 하고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석님께서 마련해주신 민중복지의 세상, 우리 조상들이 꿈꾸어오던 지상천국, 무릉도원과 같은 리상사회에서 살고있기 때문이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은 눈물의 아리랑만을 부르던 설음많던 인민에게 기쁨과 행복의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주신 인민의 태양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람들모두가 친형제 되여 화목하게 사는 공화국의 현실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여 울려퍼져온 이 노래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 높이 울려주시였다.

공화국인민들은 이 노래를 행복한 나날에만 부른것이 아니였다.

이 땅에 시련과 난관이 겹쳐들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인민을 위해 어버이수령님 마련해주신 사회주의시책은 그 누구에게라없이 속속들이 가닿았고 온 나라에는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졌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으로 전력난이 심해져 많은 공장과 가정들의 창가에 한동안 불빛이 꺼져있을 때에도 새 생명이 태여나는 평양산원에서는 사랑의 불빛이 계속 흘러나왔다.

《하늘은 푸르고》라는 노래의 짧은 구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헌신과 로고의 거대한 무게가 실려있다.

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을 영원히 지켜주시기 위해,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인민의 심장속에서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려 그이께서 헤치신 선군장정의 멀고 험한 길이 눈앞에 어려와 기쁨과 행복의 감정으로만 부를수 없는 노래이다.

이 땅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처음으로 울려퍼진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넘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려온 희망차고 랑만에 넘친 모습을 소리높이 구가한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시대의 교향곡으로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을 동반하는가를 이 땅의 남녀로소는 심장으로 새겨안고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면서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정말 좋은 구호라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완공을 앞둔 창조물들을 돌아보실 때마다 이제 여기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날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시며 환히 웃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은 천만의 심장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2017년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른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맹약하실 때 인민이 터친 감동은 얼마나 컸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가시는 사랑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 땅에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자랑찬 력사가 줄기차게 흐를것이며 인민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소리는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장혁철

청년강국으로 존엄높은 나라

공화국은 청년강국으로 존엄높은 나라이다. 세상에는 나라들이 많지만 청년강국으로 불리우는 나라는 오직 하나 조선이다.

공화국창건 70돐을 경축한 9월의 명절에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청년학생들의 홰불야회가 밤하늘을 밝게 물들이며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김정은시대》, 《최고령도자》, 《승리의 기치》…

이 글발들은 지축을 울리며 행진한 청년들이 손에 든 홰불들로 형상한 거대한 글발들이다.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장군 만세!》, 《천출명장 **김정은**장군 만세!》. 광장을 진감하며 청년학생들이 터친 이 함성에는 청년중시의 정치로 자기들을 조국을 떠받드는 시대의 영웅, 창조의 맹장들로 자라도록 보살펴주시며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함께 그이의 령도를 따라 조국을 빛내이는 길에서 피끓는 청춘을 바칠 신념의 맹세가 세차게 맥동치고있었다.

뜻깊은 9월에 공화국의 미더운 아들딸들이 더욱 뜨겁게 새겨안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그이께서 이끄시는 청년강국의 주인공이 된 무한한 행복이였다.

청년들을 시대의 선각자, 개척자로 내세워주시고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빨라야 부강할 미래가 앞당겨지게 된다고 하시며 청년들을 강국건설의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축복속에서 청년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청년이라는 이름과 함께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을 무수히 일떠세웠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투쟁모습을 보면서 눈물겹도록 동무들이 고마웠고 동무들 모두를 저 하늘이 들리도록 두팔들어 높이 떠받들어주고싶은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온 나라 청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우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모습이였다.

언제나 청년사업에 힘을 넣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품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은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고있는것이다.

어느 나라에나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이라고 하여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나라의 기둥이 되는것이 아니다.

지금 《고도성장》과 《발전》을 떠드는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정신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범죄의 길에 앞장서고있으며 사회적우환거리로 되고있는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청년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빛나고있고 온 나라가 크나큰 믿음속에 높이 떠받들어주고있다.

청년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는 탁월한 정치가, 청년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을 지닌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실 때 청년들의 삶도 빛나고 세계가 경탄하는 청년강국도 탄생할수 있음을 조선의 현실은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온 세계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신 북을 우러러보고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미래는 청년들을 중시하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며 그분께서 계시여 북에서는 청년들의 발걸음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창창하다는 찬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령도자를 모신것은 인류의 대경사이다. 걸출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청년들이 정말로 부럽다.》고 격찬하였다.

청년중시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국가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시는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공화국은 오늘도 위력하고 미래는 더욱 밝고 창창한것이다.

오문영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청년기술자들

눈부시게 발전하는 조선의 현실

70년의 력사에 정의와 승리의 자욱만을 찍어온 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찬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호그대로 인민의 나라이다. 조선인민은 세금이라는 말자체를 모른다. 조선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있으며 살림집들을 국가에서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고있다. 공화국의 모든 시책들은 인민생활향상에로 지향되고있다. 가장 훌륭한 창조물들도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인민극장 등 인민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빛나고있다.》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 단장은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성과들을 목격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평양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기쁨과 랑만에 넘친 모습은 참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브라질공산당 에스뻬리뚜 싼또 주위원회 조직비서는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생존권이 법적으로 담보되여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가 선택하고 건설한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다. 조선의 이 놀라운 현실은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로씨야의 한 신문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인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였다.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을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일떠세우시였다. 주석의 위업을 이어 **김정일**각하께서는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다지시였다.》

캄보쟈왕국 왕궁담당 부수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조국과 인민앞에 거대한 업적을 남기신 위인들이시다. 그분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경제건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위력한 나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진두에 모시고있으며 천만군민이 굳게 뭉쳐있는 조선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인디아주체사상자력갱생연구회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원수각하를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본사기자

◎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키중한것 (23) ◎

자강력제일주의

공화국에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자강력제일주의라는 말이 있다.

자강력제일주의!

이는 공화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사변들과 기적들의 밑뿌리이며 가슴벅찬 시대어들이 끝없이 태여나게 하는 비옥한 토양과도 같다.

자강력이란 문자그대로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하는 힘을 의미한다.

자기의것을 창조하고 그에 대한 믿음과 애착,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사는 나라와 민족이야말로 진짜 강국이고 강자라고 할수 있다.

강자가 되려면 자기의것을 창조할뿐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그것을 지키고 빛내일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녀야 한다.

동서고금에 총명한 두뇌와 슬기로 남부러울만 한 정신적, 물질적재부를 많이 이룩해놓았지만 힘이 약한탓에 남에게 빼앗기고 노예로 되거나 사멸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실례는 많다.

어느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강자가 되길 바라고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바란다고 하여 누구나 강자가 되고 강국의 대업을 이룩하는것은 아니다.

남의 도움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자기의것으로 힘을 키운 강자는 그 누구도 어쩔수 없다.

인류의 공통된 념원인 강국의 꿈은 자기 힘, 자기의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자강력제일주의는 비로소 어제오늘에 나온 개념이 아니다.

단 두자루의 권총으로 일제와 맞서 항일대전을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풍파사나운 조선혁명의 전 행로우에 피로써 찾으신 진리가 바로 자력자강이였고 공화국인민들에게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신 재부중의 재부가 자강력제일주의였다.

자력자강에 대하여 말할 때 공화국인민들이 저려드는 아픔속에 새기는 추억이 있다.

CNC!

지금은 철부지아이들도 스스럼없이 노래속에 외우는 말이고 오늘날의 지식경제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어이다.

하지만 그 CNC를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헤아릴수 없는 마음속고통을 이겨내셔야 했다.

당시 국고에 있던 돈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자금을 CNC화에 돌리려고 결심하실 때 그처럼 인민을 사랑하신 그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리시였겠는가.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며 피눈물을 삼키시였던 장군님.

후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께서 《돌파하라 최첨단을》이라는 노래를 들으실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군 하시였는데 그것은 진정 애국의 눈물이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새 세기의 산업혁명…

공화국에서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격동적인 사변들이 련속 터져나왔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고생과 맞바꾸어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인 귀중한 열매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이다.

자기 운명을 제 손에 틀어쥐고 제 힘으로 개척해나갈 때 강자가 되며 자력자강을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도 지키고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며 과학이다.

오늘 10년을 1년으로, 1년을 하루로 주름잡으며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신 변화와 기적을 창조하는 공화국의 현실앞에 누구나 놀라고있다.

외국의 한 언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오늘날 세계는 불패의 강국인 조선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지니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자강력제일주의의 빛나는 결실이다.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체의 힘과 지혜로 경제와 문화, 국방을 발전시키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자강력제일주의야말로 공화국의 전 력사를 줄기차게 관통하고있는 조선의 정신, 조선의 힘이며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위력한 무기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금강산의 옥류담

신비한 치료효능을 가진 온천자원들

산좋고 물이 맑아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워온 우리 나라에는 온천과 약수를 비롯한 광천자원도 풍부하다.

특히 백두산을 비롯한 북부고산지대로부터 벌방지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사람들의 건강과 병치료에 효과가 좋은 온천자원이 널리 분포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광천 150여개 가운데서 온천은 50여개이며 이중에는 경성온천, 송흥온천, 세천온천, 종달온천, 신천온천, 배천온천, 은천온천, 석탕온천 등 유명한 온천들이 있다.

우리 나라의 온천은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매우 좋은 성분들을 포함하고있다.

물질세계에 100여종의 화학원소들이 알려져있다고 볼때 그 절반이나 되는 50여종의 화학원소들이 온천에 이온상태로 해리되여있다.

이온상태로 있는 원소들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으면 강한 활성을 가지고 여러가지 화학반응에 참가하여 물질대사전반에 좋은 영향을 준다.

철이온은 사람의 몸안에서 혈색소의 구성부분을 이루면서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촉진작용을 하며 동이온은 사람의 몸에 흡수되여 혈색소합성에 참가하며 골수를 자극하여 적혈구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준다.

사람의 생존필수원소로서 제일 중요한 원소인 나트리움은 세포의 정상구조유지와 정상기능수행을 조절할뿐아니라 몸안에서 전해질의 평형을 유지하고 삼투압을 보장하며 체액의 완충작용에도 참가한다.

이밖에도 칼리움, 마그네시움, 염소, 아연, 알루미니움, 니켈, 요드 등 사람의 몸에 극히 필요한 화학원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온천은 일련의 질병들이 재연되거나 재발되는것을 막는 효능적인 자연치료수단으로 되고있으며 만성질병의 특성에 맞게 오래동안 치료하여도 사람의 몸에 해로운 작용이 없고 오히려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어 체질을 개선할수 있게 한다.

온천들의 약리작용을 본다면 백두온천은 수소탄산나트리움이 많은 온천으로서 만성기관지염, 신경통 등의 치료에 특효가 있고 양덕군안의 온천들은 류황성분이 많고 라돈이 극히 적은 고온천으로서 용출량이 대단히 많고 약리적작용과 치료효능이 높다.

또한 우리 나라 온천들가운데서 물온도가 제일 높은 웅진온천은 염소성분이 많고 소화기질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데서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온천들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오는 만성적인 아픔을 멈추는 작용, 여러 기관과 장기들의 만성염증을 빨리 없애는 작용, 혈압을 낮추는 작용, 물질대사기능을 높이는 작용,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하며 이밖에도 여러가지 원인의 골관절질병, 고혈압병, 동맥경화증, 경한 당뇨병, 비만증, 통풍, 고뇨산혈증, 외상 및 수술후유증, 만성기관지염, 신경통, 신경염, 사지마비 및 부전마비, 일부 피부질병, 만성중금속중독, 만성위장질병, 만성간담낭담도질병, 일부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질병들의 예방과 치료에 좋다.

먼 옛날부터 우리 나라 온천의 치료효능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리용을 요청하였다는 력사기록도 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온천들마다에 현대적인 치료시설과 설비를 갖춘 료양소들을 꾸려놓고 사람들의 건강증진과 치료회복에 널리 리용하고있다.

온천은 욕치료가 기본인데 관수욕, 물안운동욕, 수영, 덕수, 관주욕, 흡입, 입안물맞이 등의 방법으로 쓰며 온천물을 마시는 방법으로도 쓰고 있다.

얼마전 룡강에 온천치료관광을 다녀왔다는 평양시 서성구역의 박정심녀성은 땅속에서 솟아나는 더운물에 몸을 잠그고 있느라면 해묵은 병조가 언제 달아났는지 몸도 마음도 거뜬하여진다고 말하였다. 또한 료양소에 종합운동장과 탁구실, 오락실 등 체육문화시설들과 진료소, 목욕탕, 리발소, 미용원, 사진관, 상점 등 편의봉사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료양생들과 함께 즐거운 휴식의 한때도 보내다나니 만나는 사람마다 몇년은 젊어진것 같다고 말한다고, 다음번에는 온 가족과 함께 온천치료를 받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평양시 대동강구역에서 살고있는 한 로인도 신경통으로 전혀 펼수 없었던 다리를 성천온천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지 보름만에 완전히 펼수 있었으며 허리아픔도 없어지고 변형으로 곱지 못하던 자세가 바로잡히게 되였다고 하면서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참으로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이 땅은 그속에서 솟아나는 신비한 치료효능을 가진 온천과 함께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관서8경의 하나인 동림폭포

평안북도 동림군 고군영리의 북서부 태봉(해발높이 593m) 남쪽골짜기에 있는 동림폭포는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 폭포의 높이는 5m이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두 절벽사이의 너비는 2m정도되며 물의 pH는 7.1로서 중성이다. 이곳 공기는 음이온농도가 도시구역보다 비할바없이 높아 특별히 시원한 감을 준다.

폭포우에는 룡바위, 병풍바위가 있고 아래에는 말안장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바위들이 드러나있는 변두리에는 바위짬에 뿌리를 박은 소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들이 우거져 명승지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준다.

발원지는 북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사이에 50여개의 폭포와 못, 소들이 있다.

동림폭포는 다른 폭포들에 비하여 장쾌하거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생김새가 기묘하고 물이 하도 맑아 예로부터 《옥포》라고 불리워왔으며 또한 떨어지는 폭포수를 직접 맞을수 있어 물맞이폭포로 유명하다.

오늘 동림폭포지구에는 현대적인 호텔을 비롯한 여러가지 봉사시설들까지 마련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휴식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화가 김두량과 조선화 《사계절》

조선화 《소몰이군》을 그린것으로 하여 유명한 김두량의 작품가운데는 《사계절》도 있다.

조선화 《사계절》은 가로말이형식의 그림인데 김두량이 밑그림을 그리고 그의 아들인 김덕하가 채색을 한것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린것으로서는 유일하다.

우아래를 잘라 화면을 함축함으로써 매 계절의 전형적인 환경을 집약적으로 묘사하면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작품의 기본내용에로 집중되도록 하였다.

그림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우리 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속에서 량반지주와 농민들의 생활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있는데 인물들은 비록 작고 좁은 자리를 차지하게 그렸지만 그 비중은 결코 작은것이 아니며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데 충분히 기여하고있다.

봄장면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산에 들에 꽃향기가 가득차고 파랗게 물이 오른 실버들가지들이 가볍게 흐느적이며 봄맛을 더해주고있는 화창한 봄날이 형상되여있다. 그속에 말타고 산놀이를 떠나거나 심부름군아이에게 술병을 들리워 꽃구경갔다오는 량반들과 봄향기에 취해볼 겨를도 없이 거름짐을 져나르고있는 농민이 그려져있다.

여름장면에서는 더위를 피하여 집안에서 한가로이 바둑을 두거나 시내가의 나무그늘아래서 술놀이를 벌린 량반들과 찌는듯 한 뙤약볕아래서도 논김을 매고 마당을 쓸며 물고기도 잡아야만 하였던 농민들과 머슴들의 모습을 볼수있다.

가을장면에서 농민들은 벼가을하고 벼단을 날라들이며 마당질하고 발방아를 찧으면서 힘겹게 일하고있는데 지주는 타작마당에 서서 그들의 일손을 지켜보고있다.

겨울장면에서는 맵짠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뜨뜻한 기와집안에 앉아 글읽고 술을 마시거나 혹은 사냥으로 시간을 보내는 량반들과 길길이 눈이 쌓인 산에서 땔나무를 해지고오거나 눈덮인 사냥터에서 추위에 떨면서 몰이군노릇을 하는 농민들이 그려져있다.

그림은 량반들의 생활을 기본으로 하면서 농민들의 생활을 보조적으로 그린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우리 나라의 아름다움을 폭넓고 풍부하게 취급한것으로 하여 사실주의회화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본사기자

조선화 《소몰이군》

사화

온달과 평강공주 (1)

글 최규환, 그림 김영희

고구려 25대 평강왕(559—590)때에 평양성밖 어느 마을에 온달이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온달은 원래 가난한 농사군집 출신이였으며 집에는 어머니와 단 두식구뿐이였다. 더구나 어머니는 눈이 먼 70이 넘은 로파였다.

온달은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의 집은 몹시 가난하여 하루세끼를 잇기가 어려운 형편이였다.

그리하여 온달은 부득이 산에 가서 느릅나무껍질을 벗기거나 칡뿌리를 캐여야만 하였으며 때로는 평양성안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구걸을 다니는 때도 있었다.

그렇지 않고는 늙은 어머니를 모실 도리가 없었던것이다.

그의 얼굴은 여위고 의복은 허술하여 우습게 보였으나 마음은 순박하였다. 추운 겨울에도 맨발에 뒤축이 주저앉은 헌신짝을 끌고다녔다.

머리는 언제나 귀를 덮어 텁수룩하였으며 흙먼지를 뒤집어쓴 때묻은 얼굴이였다. 그러나 큰 두눈만은 유난히 번쩍이고있었다.

평양사람들은 그를 불러 《바보온달》이라고 하였다.

《바보온달, 바보 바보.》

그들은 이렇게 온달을 비웃었다. 온달은 어느 사이엔지 평양거리에서 큰 이야기거리가 되였다.

그들사이에 떠도는 《바보온달》에 대한 여러가지 억측과 소문들중에는 그의 효성에 대한 이야기도 화제에 오르고있었다.

《저 바보가 저래 보여도 효성만은 지극하오. 저의 집에 칠십이 나는 늙은 소경어미가 있는데 저렇게 구걸을 하는것도 어미를 공대하기 위해서라오.》

바보로서는 신통한 일이라는 그런 말투였다. 이렇게 모두들 온달을 바보로 알고있었으나 기실 온달은 바보가 아니였다.

그에게는 뛰여난 용력과 지혜가 숨겨져있었다. 그의 얼굴도 다만 쑥대강이같은 머리가 귀를 덮었고 흙먼지의 때를 벗지 못하였을뿐 그가 지닌 얼굴의 본바탕은 범상치 아니하였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으면 그에게서 어딘가 헌헌한 장부의 기개를 엿볼수 있었을것이다. 그런데 그는 원체 가난하고 미천한 집안의 출신이여서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때, 고구려궁중에는 공주가 한사람 있었으니 그는 평강왕의 외딸이였다. 공주는 자질이나 지혜가 남달랐으며 얼굴이 아름답기로도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특이한것은 귀인으로서 어질고 덕이 있는 그의 성품이였으니 그는 누구에게나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는 소문이였다.

공주가 어렸을 때 울기를 잘하는 버릇이 있어서 한때는 그로 하여 《울보공주》라는 별명까지 들은 일이 있었다.

공주는 어려서 무슨 일을 두고 울기가 일쑤였다. 그리하여 궁중내전에서는 공주의 울음소리가 그칠사이가 없었다.

그러나 공주를 더없이 사랑하는 왕은 어린 딸이 울면 곧잘 희롱을 했다.

《너 그렇게 자꾸만 울면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 계집아이가 자나깨나 울기만 하고서야 바보에게나 시집을 갔지 왕족의 집안에서야 누가 너따위를 며느리로 데려가겠느냐.》

왕은 그리고는 껄껄 웃는것이였다. 왕은 어느 사이엔지 그것이 버릇과 같이 되였다.

《넌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거라.》

왕은 물론 바보온달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의 소문을 귀에 젖도록 들었기에 그저 무심코 입버릇처럼 말하는것이였다.

공주의 나이 열여섯살이 되였을 때였다.

이제는 《울음보》란 말도 옛이야기가 되였다. 왕은 마침내 공주를 위하여 사위를 물색하게 되였다. 점찍힌것은 상부 고씨의 아들이였다.

상부 고씨라면 평강왕을 도와 나라에 큰 공이 있었으며 그의 집안은 왕실의 근친으로서 고구려에서는 건국이래의 공신이였다. 그 아들은 젊은 무인으로서 용력이 뛰여났으며 특히 활 잘 쏘고 말 잘 타기로 이름이 있었다.

매년 봄, 가을 락랑구에서 열리는 사냥놀이에서는 언제나 으뜸이 되였다. 그러기에 왕이 그를 공주의 배필로 삼으려 한것은 응당한 일이였다. 그러나 공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공주는 이미 온달을 그 유일한 배필로 마음속에 정한지가 오래였다. 게다가 그는 상부 고씨의 아들을 그리 달가운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다.

고씨의 아들은 무슨 일에나 가문과 권세를 앞세웠으며 남을 천시하고 업수이 여기는 거만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러니 그가 고씨의 아들을 좋게 생각지 않은것은 까닭없는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왕은 공주의 이런 깊은 생각을 알리 없었다. 고씨의 아들은 마침내 왕의 사위로 정해진것이다.

그러나 공주의 얼굴에서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결의가 엿보였다.

《황송하오나 상감마마. 오늘 분부를 소녀로서는 받들기 어려운것으로 아뢰나이다.》

공주는 조금도 서슴지 않았다.

《무엇이?》

왕은 얼굴빛이 변하였다.

《상감마마께서는 일찌기 분부하시기를 소녀가 크면 온달에게 시집을 가라고 하셨나이다. 항간의 백성들도 한입으로 두말이 없을진대 어찌 거룩하신 마마께서 두번 다른 분부가 있겠사오니까.》

《그러면 공주는 이자리에서 나의 뜻을 거역한단 말인가?》

《황송하오이다. 그러나 혼인은 인간의 소중한 대사이옵고 소녀는 이미 상감마마의 분부를 받든 몸이오니 두번 고쳐 받들기 어려운것으로 아뢰나이다.》

《그러면 정녕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단 말인가?》

왕은 그 순간 어이없는 얼굴이였다.

《소녀에게는 다른 뜻이 없나이다.》

공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공주는 진정 그렇게 굳게 마음을 다지였던것이다.

왕은 노한 나머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이 아이를 당장 궁중에서 내여쫓으라!》

그는 이렇게 좌우를 향하여 호령하였다.

순간 대궐안은 물을 뿌린듯이 조용하였다. 좌우의 신하들은 모두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왕은 다시 공주를 향하여 다짐을 하였다.

《너는 지금부터는 내 딸이 아니다. 나는 아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불효막심한 딸을 딸로 여기고싶지 않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자 안으로 사라졌다.

문무백관은 모두 무색한 얼굴들이였다. 공주는 서슴지 않고 그날로 궁중을 떠났다.

오가산자연보호구

자강도 화평군과 량강도 김형직군의 경계지대에 있는 오가산자연보호구는 공화국의 귀중한 국보들중의 하나이다.

오가산령을 중심으로 수림의 바다가 끝간데없이 펼쳐진 오가산자연보호구의 총면적은 6 500여정보에 달한다.

여기에는 수많은 진귀한 천연기념물들이 있으며 동식물자원만 해도 천수백여종이나 된다.

공화국에서 그 형성력사가 가장 오랜 산림지대의 하나이고 다른 명산에 없는 독특한 원시림이 있는것으로 하여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끌고있다.

오가산자연보호구에는 1 100여년 묵은 주목과 700여년 자란 신갈나무, 500년이상 자란 잣나무와 피나무를 비롯하여 수백년, 천년이상 자란 나무들이 많다.

만삼, 삼지구엽초, 산함박꽃, 두릅, 고사리, 참나물 등 약리작용이 세고 건강에 좋은 약초와 산나물들도 수없이 자라고있다.

서식조건이 유리한 이곳에서 산짐승류와 새류, 량서류, 파충류, 물고기류 등 수백종의 동물들도 살고있다.

학술연구와 과학연구사업에서 대단히 의의가 큰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오늘 동식물상이 보다 풍부화되고있다.

본사기자

맛있고 영양가높은 고급 남새작물—주름아욱

주름아욱은 무궁화과에 속하는 한해살이남새작물로서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고 리용가치가 큰 고급남새작물이다.

주름아욱은 배추, 시금치를 비롯한 일반남새들에 비하여 단백질함량은 3~4배정도, 비타민 C, B_1, B_2을 비롯한 여러 비타민들의 함량은 10배정도나 많으며 칼시움, 마그네시움을 비롯한 광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을뿐아니라 로화를 방지하는데도 효과가 있다.

주름아욱은 잎줄기와 뿌리, 씨앗을 고려약재로 쓰며 록비 및 먹이작물로도 쓸수 있는것으로 하여 리용가치 또한 크다.

주름아욱은 우리 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다 재배할수 있다.

주름아욱으로 국을 끓이면 구수한 참미역국 같고 또 볶거나 무쳐서 먹으면 향기롭고 감칠맛이 있다. 물고기회를 하거나 고기음식을 만들 때 주름아욱을 넣으면 짙은 향기로 하여 그 맛이 별맛이다.

본사기자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